

## “광주,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피해 최소화 대책 찾아야”

대책본부 관료 중심 벗어나 의료인들 참여·권한 강화해야  
전남대·조선대병원 내 선별진료소 철수 응급환자 보호를  
감염병 전담병원 추가 확보...인력·장비·시설 서둘러 마련

### 순천·여수에 확진자 2명 발생

코로나19가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그동안 정경지역으로 쫓겨난 전남도 지난 주말 순천과 여수 등에서 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역 의료계를 중심으로 호남지역 의료 거점인 광주시의 티타임 방역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큰 틀에선 중앙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면서도, 장기전과 대학원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지역 맞춤형 방역 로드맵을 만들고, 관련 의료인력과 장비, 시설 확보 등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지역 의료계의 조언이다.

〈관련기사 2, 3, 5, 6, 7, 14면〉  
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코로나19는 국내 발생 4주만에 광주·전남 12명(광주 9명, 전남 3명) 등 확진환자만 전국적으로 3736명을 기록하는 등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는 기존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과 달리 증상이 거의 없는 감염 초기 바이러스 전염 활동이 가장 활발하다는 특성 때문에 확산세가 훨씬 빠르다는 게 의료계의 설명이다.

사건 격리중이던 간호사가 확진판정을 받은 순천드림내과 배영 원장은 “대구에 다녀왔다는 간호사를 곧바로 격리하지 않

았다면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었다”면서 “지역이나 장소, 공간을 불문하고, 지금 당장 어느 곳에서나 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게 코로나19다. ‘우리 지역은 괜찮겠지’라고 방심하면 절대 안된다”고 조언했다.

신민호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는 “현재 광주에서 일주일째 신규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이는 타 지역에 비해 방역 시스템이 잘 구축됐다고 보다는 그냥 운이 좋은 것일 뿐”이라며 “광주도 대구처럼 어느 순간 갑자기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역 감염병·예방의학 전문 의료인들은 질병관리본부 중심의 중앙정부 방역 대책과는 별도로, 지역 특성을 맞는 광주(전남)만의 코로나19방역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단 지역 의료시스템의 최후보수인 전남대·조선대학교병원 내 선별진료소부터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자칫 코로나19확진자가 이들 대학병원으로 유입될 경우 코로나19보다 훨씬 심각한 응급환자들이 갈 곳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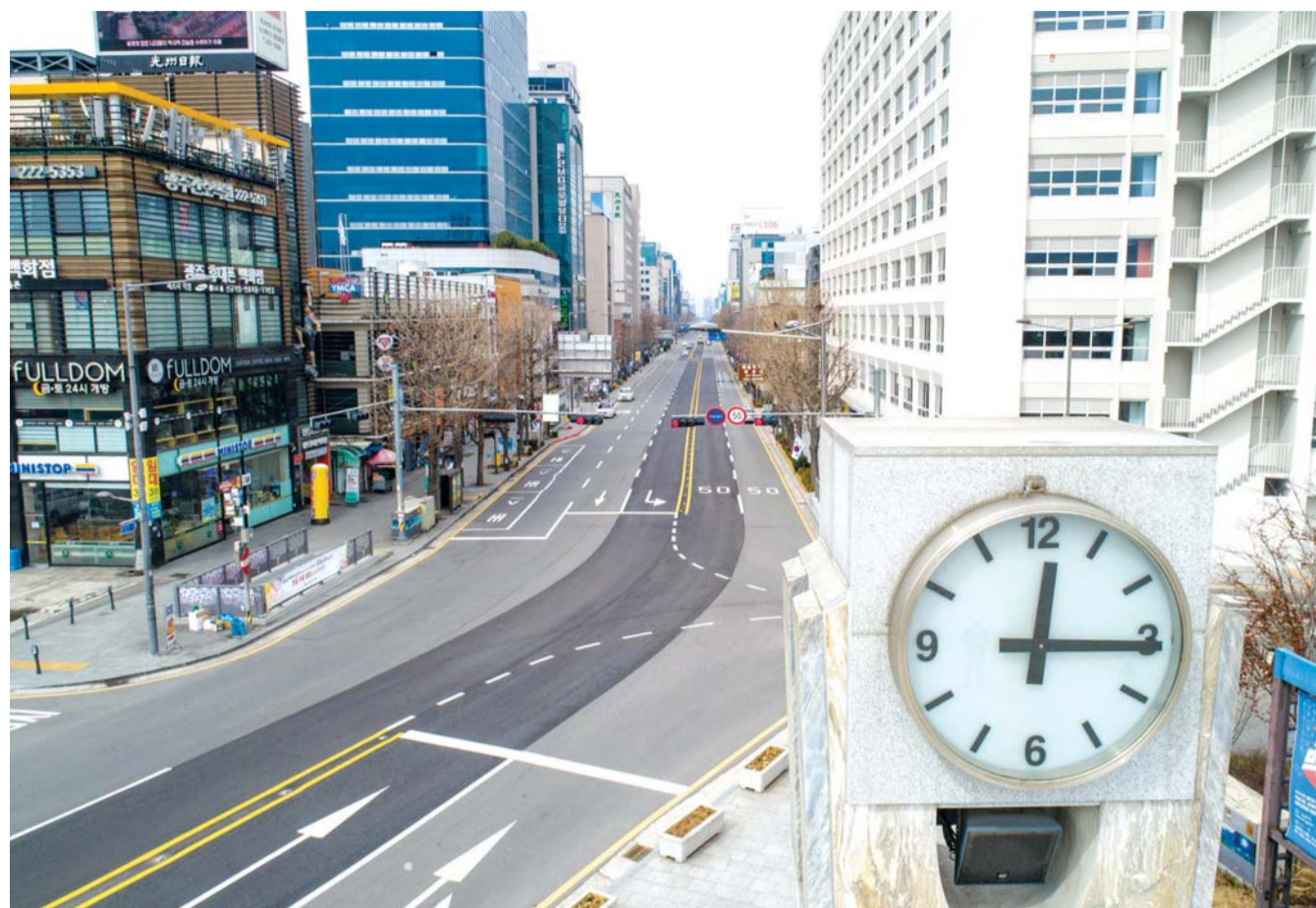
또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비해 현재 빛고를 전남대병원 등 2곳 뿐인 감염병 전담

병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시설에 감염병 전문 의료인 배치 및 의료 장비·시설 등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의견이다. 또 의료 전문가들과 함께 코로나19 환자 대량 발생에 대비한 경증·중증 환자의 격리 기준과 추적 기준 등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도 내놓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지금부터라도 조속히 음압격리병상 확충 등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를 위해선 현 관료 중심 컨트를 타워(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전문 의료인이 추가로 합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단순 조언이 아닌 방역 정책을 함께 결정하고, 상황에 따라선 지시까지도 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의료인의 참여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현재 담당 국장만 단장으로 전문 의료인 4명이 포함된 지역 감염병 협력 위원회와 민관 의료 협의체 등을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의료인들 사이에선 ‘무늬만 협의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한 의료인은 “주변 의료인들은 (우리가) 중요한 역할이나 결정권을 가진 줄 알고 방역 현장의 각종 어려움을 호소하는 데 지금까지 딱 3차례 모였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광주)시의 자문에 답해주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방역 현장의 개선사항을 제안해도 검토하겠다는 말 외엔 달라지는 게 없어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복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코로나19 불안에... 텅 빈 광주 금남로 전남지역에서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감염증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휴일인 1일 오후 평소같으면 차량과 인파로 북적여야 할 광주 동구 금남로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민주당, 광주·전남 6곳 공천자 결정

#### 여야 대진표 점차 윤곽

4·15 총선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여야 대진표가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관련기사 4면〉

더불어민주당은 1일까지 광주·전남 18개 지역구 중 6곳의 공천자를 결정했다. 광주는 8개 지역구 가운데 2곳, 전남은 10개 지역구 가운데 4곳이다.

지난달 26~28일 경선을 한 광주 동남구는 이병훈 후보가 김해경 후보를, 북구갑은 조오섭 후보가 정준호 후보를 누르고 공천을 받았다. 이에 따라, 동남구는 민주당 이병훈 후보와 민생당 김성환·박주선 후보, 정의당 최만원 후보가 경쟁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구에 선 현역 의원인 박주선 후보와 김성환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주목된다.

북구 갑은 민주당 조오섭 후보와 현역 의원인 무소속 김경진 후보, 정의당 이승

남 후보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지난달 27~29일 경선이 진행된 목포에서는 김원이 후보가 우기중 후보를, 여수에서는 김희재 후보가 정기명 후보를, 해남·완도·진도에서는 윤재갑 후보가 윤광국 후보를 각각 물리쳤다. 이에 따라 목포에서는 민주당 김원이 후보와 민생당 박지원 후보, 정의당 윤소하 후보가 물러설 수 없는 3각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여수에서는 민주당 김희재 후보와 민생당 주승용 의원의 일전이 예상된다. 해남·완도·진도에서는 민주당 윤재갑 후보와 민생당 윤영일 의원이 맞붙는다. 담양·함평·영광·장성에선 민주당이 현역인 이개호 의원을 단수공천한 가운데 민생당 김연관, 무소속 김선우 후보 등이 도전에 나서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경선이 코로나19 사태로 컨벤션 효과를 내지 못

#### 민주당 광주·전남지역 공천자

	선거구	공천자
광주	동남을	이병훈
	북구갑	조오섭
전남	목포	김원이
	여수을	김희재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해남·완도·진도	윤재갑

하고 있는 가운데 민생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점차 전열을 갖추고 있어 총선 막판에는 치열한 각축전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대구 코로나19 환자 광주·전남서 치료한다

#### 광주시·전남도, 병상 제공키로

광주시와 전남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2000여 명이 넘어서면서 병상 부족을 겪고 있는 대구시에 병상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일 광주공동체 특별담화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 19와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달빛동맹’ 형제 도시 대구를 돕기 위해 대구지역 코로나19 경증 확진자를 광주에서 격리 치료하겠다”면서 “시민 여러분께서 하나 된 마음으로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시장은 “대구시민들이 코로나 확진을 받고도 병상이 없어 방치되고,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의료진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의향 광주의 시대적 소명과 책임에 대해 심사숙고 한 끝에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철저한 방역과 외부와의 완전 차단 등 만반의 조치를 한 뒤 대구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대구 경증 확진자들을 증상에 따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빛고를 전남대병원과 시립 제2요양병원에 격리, 입원시켜 치료할 계획이다.

광주시의 병상 제공 방침은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을 바탕으로 ‘달빛 동맹’ 형제 도시인 대구를 돕고, 코로나19 극복에 힘

을 보태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날 담화 발표에는 광주시의회, 광주시 교육청, 광주 5개 자치구, 전남대, 조선대,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5·18단체, 종교계,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동참했다. 전남도도 이날 대구 지역 코로나 19 환자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박병호 행정부지사는 이날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대구지역 상황이 심각하고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국의 사·도가 대구지역 코로나 환자 수용을 분담한다면 전남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정부 당국에 전했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6년  
민심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촉촉하게 쌓은 레이어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다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얼굴 구석구석에서 전에 없던 그림자가 보인다면  
이제, 탄력에 레이어를 쌓아야 할 때  
레이어가 쌓일수록 피부는 탄탄하게 차오르니까  
탄력을 촘촘하게 레이어링하는 고농축 진세니스피어™ 캡슐에너지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세요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SERUM  
자음생에센스

# Sulwhasoo

• 설화수 플래그십스토어 및 전국 백화점,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instagram.com/sulwhasoo\_official • 콜센터: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